



시대에 맞고, 소비자중심의 디자인 추구

신뢰 바탕, 처음 마음가짐으로

오국영/ 휴먼산업디자인 소장

「팔리」 리는 상품의 힘은 디자인의 힘이다”

휴먼산업디자인 오국영 소장의 말이다.

현재 휴먼산업디자인을 이끌고 있는 오국영 소장은 포장 디자인 분야에만 20여년 이라는 시간과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국영 소장은 대학에서 응용 미술을 전공, 1975년에 첫 직장으로 일본 아이다 생계 기모노 디자인실에 근무했었다. 그러나 기모노라는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국한 돼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인이 일본회사에 다닌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포장 디자인을 택하게 됐고, 지금까지 그 때의 선택으로 인한 후회는 한번도 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당시 일본은 경기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고, 그러한 시기에 외국인이 기모노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모노는 일



본이라는 나라에 국한 돼 있는 것이었기에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며 공유할 수 있는 디자인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 주머니 속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바로눈앞에 포장된 수많은 제품이었습니다”라며 포장과 처음접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1980년 동양제과 포장 디자인실에 입사하면서 포장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오국영 소장은 “그 당시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모든 디자인은 수작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에 힘들게 디자인했던 제품들에 대해 더욱더 애착이 갑니다”라며 동양제과에 있을 당시 수작업으로 디자인 한 것들을 꺼내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렇게 3년을 근무하다가 오국영 소장은 1983년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입사하면서 포장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경험을 한뒤 1998년 휴먼산업디자인을 설립하였다. “상호를 휴먼산업디자인이라 한 것은,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며,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싶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오국영 소장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간의 신뢰를 가장 최고로 꼽고 있다.

인터뷰 도중 디자인을 의뢰하고자 하는 한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오국영 소장이 담당하고 있는 디자인과는 거리가 있는 일이었다. 오국영 소장은 자신의 분야 밖의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며, 통화하는 내내 친절함을 보였다.

오국영 소장은 “흔히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일단 붙잡고 보자는 식의 기업 이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문분야가 아닐 시에는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의 솔직함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휴먼산업디자인에서는 포장 디자인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포장디자인은 물론 수출용 포장 디자인도 도맡고 있는데, 오국영 소장은 “수입제품 포장을 보면 수입한 나라의 글이 표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용 제품에 우리나라 글이 아닌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글을 표기해 수출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 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며 현실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로 아무리 디자인이 훌륭하다 해도 그 나라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디자인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라며 “각자의 위

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투명한 경쟁을 하며, ‘나’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소의 기능처럼 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오국영 소장은 20년 동안 포장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그에 대한 신뢰만큼이나 그의 경력은 화려했다. 1986년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에 이어 아시아스타상 수상, 월드스타상 수상, 산업디자인포장 및 수출증대 공로표창, 중소기업 우수기술 지도상의 수상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 GD. 우수산업디자인 상품선정 심사위원, GP. 우수포장 상품선정 심사위원, 공산품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도위원, 농산물가공기술지원단 지도위원을 맡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오국영 소장은 “어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포장디자인에 매력을 느껴 시작한지가 20년을 넘었지만 지금도 처음느낌처럼 흥미롭고 새롭습니다. 앞으로 포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포장디자인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에 아낌없는 투자로 시대에 맞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포장디자인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나’를 위한 디자인이 아닌 ‘우리’를 위한 디자인을 하겠다는 오국영 소장의 모습은 요즘과 같은 각박한 사회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찾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주목해 본다.

권해진 기자